

## IFRS in Focus

IASB,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를 완료

### 목차

- 제안사항
-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 다음 단계

#### IAS Plus website

We had over 12 million visits to our [www.iasplus.com](http://www.iasplus.com) website. Our goal is to be the most comprehensive source of news about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on the internet. Please check in regularly.

For more useful information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s:

[www.iasplus.com](http://www.iasplus.com)  
[www.deolitte.com](http://www.deolitte.com)

### 요점

- IASB와 FASB는 '제1장: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목적(The objective of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과 '제3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 of useful financial information)'을 발표함으로써 개선되고 합치된 개념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하였다.
-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그리고 잠재적인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보고기업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유용한 재무정보의 기본적인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relevance)'과 '충실한 표현(faithful representation)'이다. 정보가 비교가능(comparable)하고 검증가능(verifiable)하며 적시에 제공되고 (timely) 이해가능(understandable)하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질적 특성은 향상된다.
- 재무보고에 포함될 정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성(materiality)과 원가-효익의 제약조건(cost-benefit constraint)을 고려해야 한다.

### 제안사항

2010년 9월 28일, IASB와 FASB는 '제1장: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목적(Chapter 1: The objective of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과 '제3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Chapter 3: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useful financial information)'을 발표함으로써 IFRS와 US GAAP을 개선시키고 합치하는 개념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를 완성하였다. 개념체계 프로젝트(conceptual framework project)의 목적은 원칙중심적이고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합된 장래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건전한 기초를 세우기 위함이다.

개념체계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각 chapter가 완료되면 이와 관련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의 기준 문단은 대체될 것이다.

##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개념체계는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확립된 것이며 단지 재무제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개념체계는 재무보고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성과(예를 들어, 배당으로 수취할 현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예상하는 시장가치의 증가)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기대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흐름의 금액, 발생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에 의존한다.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이용자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즉, 재무상태), 영업활동과 그 밖의 사건이나 거래로 인한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예를 들어, 주식의 추가발행) 및 영업, 투자, 재무활동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제1장의 개념은, 일반목적 재무보고는 정확한 기술이 아닌 (개념체계의 공동 프로젝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best estimates), 판단 및 모형에 기초하는 것이며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고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제3장에서는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해야 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2가지 기본적인 질적 특성 - '목적적합성(relevance)'과 '충실향 표현(faithful representation)'은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에 유용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는 목적적합하다. 정보가 미래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투입변수로 사용되거나 미래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 종전의 투입변수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킴으로써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한다면, 그러한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목적적합한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충실히 표현되어야 한다. 충실향 표현은 가능한 한 '완전하고(complete) 중립적(neutral)이며 오류가 없는(free from error)' 표시를 말한다.

더욱이 제3장에서는 정보가 '비교가능(comparable)하며 검증가능(verifiable)하고 적시성(timely) 있게 제공되며 이해가능(understandable)하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질적 특성은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질적 특성의 향상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히 표현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재무보고에 포함될 정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성(materiality, 다시 말하면 재무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과 원가-효익의 제약조건(cost-benefit constraint)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재무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드는 원가는 그러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효익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 다음 단계

현재 개념체계 프로젝트 중 보고기업(reporting entity) 단계, 측정(measurement) 단계 그리고 구성요소와 인식(element and recognition) 단계 등 개념체계 프로젝트 중 3개의 단계가 수행 중이다. 보고기업 단계에서는 무엇이 보고기업을 구성하는지를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고기업 개념에 대한 공개조안(ED)은 2010년 3월에 발표되었으며 2010년 말에 최종 chapter가 완

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IASB와 FASB는 아직 측정 단계나 구성요소와 인식 단계에 대한 ED의 발표시기나 나머지 단계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 주요 연락처

### IFRS global office

#### *Global IFRS Leader – Clients and Markets*

Joel Osnoss

[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mailto: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

#### *Global IFRS Leader – Technical*

Veronica Poole

[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mailto: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

#### *Leader – Global IFRS Communications*

Randall Sogoloff

[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mailto: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

### IFRS centers of excellence

#### Asia-Pacific

*Korea*

이길우

[kilwlee@deloitte.com](mailto:kilwlee@deloitte.com) (Tel: 02 6676 3980)

*Hong Kong*

Stephen Taylor

[iasplus@deloitte.com.hk](mailto:iasplus@deloitte.com.hk)

*Melbourne*

Bruce Porter

[iasplus@deloitte.com.au](mailto:iasplus@deloitte.com.au)

*Tokyo*

Shinya Iwasaki

[iasplus-tokyo@tohmatsu.co.jp](mailto:iasplus-tokyo@tohmatsu.co.jp)

#### Americas

*New York*

Robert Uhl

[iasplusamericas@deloitte.com](mailto:iasplusamericas@deloitte.com)

*Montreal*

Robert Lefrancois

[iasplus@deloitte.ca](mailto:iasplus@deloitte.ca)

*Buenos Aires*

Fermin del Valle

[iasplus-LATCO@deloitte.com](mailto:iasplus-LATCO@deloitte.com)

#### Europe-Africa

*Brussels*

Laurent Boxus

[BEIFRSBelgium@deloitte.com](mailto:BEIFRSBelgium@deloitte.com)

*Copenhagen*

Jan Peter Larsen

[dk\\_iasplus@deloitte.dk](mailto:dk_iasplus@deloitte.dk)

*Frankfurt*

Andreas Barckow

[iasplus@deloitte.de](mailto:iasplus@deloitte.de)

*Johannesburg*

Graeme Berry

[iasplus@deloitte.co.za](mailto:iasplus@deloitte.co.za)

*London*

Elizabeth Chrispin

[iasplus@deloitte.co.uk](mailto:iasplus@deloitte.co.uk)

*Madrid*

Cleber Custodio

[iasplus@deloitte.es](mailto:iasplus@deloitte.es)

*Moscow*

Michael Raikhman

[iasplus@deloitte.ru](mailto:iasplus@deloitte.ru)

*Paris*

Laurence Rivat

[iasplus@deloitte.fr](mailto:iasplus@deloitte.fr)

*Rotterdam*

Ralph ter Hoeven

[iasplus@deloitte.nl](mailto:iasplus@deloitte.nl)